

건강과 수행



비위(脾胃)와 걱정

'비위가 상했다'는 것은 걱정이 많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 번쯤 들었을 만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나막신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을 둔 할머니 이야기이다. 비가 오는 날에는 나막신장수 아들이 장사를 할 수 없고 해가 뜨고 맑은 날에는 반대로 우산장수 아들이 장사를 할 수 없어서 매일 걱정만 하는 할머니는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탓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걱정도 팔자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우리 몸에서 비장과 위장은 밥을 먹고 소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주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면 비위가 상하게 되고 반대로 비위가 상하면 갖가지 걱정과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막신장수와 우산장수 아들을 둔 할머니는 비위 기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밥맛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비위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생각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자. 식곤증은 식사 후 소화를 위해 위장에 피가 몰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뇌에 공급되어야 할 피가 부족하게 되어 잠이 오는 현상이다. 이 현상과는 반대로 맑은 날에는 나막신이 잘 팔려서 좋다고 생각한다면 할머니에게 무슨 걱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많이 하는 직업에 가진 연구원이나 교수들에게서는 위장병이 많

이 발견된다고 한다. 이러한 부류들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대부분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는데 이것은 지나친 생각으로 인해 비위의 기능이 부조화된 것이다. 또 비장은 살을 주관하는데 생각을 너무 깊이 하게 되면 살도 찌지 않게 된다. 이렇게 사람이 마르게 되면 당연히 단맛 나는 음식이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뇨는 걱정하지 말고 단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면 비위의 병이 고쳐지고 속쓰림이나 위염, 위궤양 등의 위장병도 호전된다.

비위가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은 남을 의심하지 않는 반면 남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비위가 상해 있다고 한다. 현대는 불신의 시대이다. 불신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비위 상할 일이 많이 생기니 위장병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몸은 그에 반응하여 비장이나 위장에 질병을 만들어버리는데 우리의 몸은 너무나 정교하여 자그마한 것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지만, 각 장기의 세포들은 우리들이 평소 하는 생각과 행동 모두를 체크하여 몸에 반영한다. 그런 세포들이 교란 당해 기능들이 조화롭지 못하게 되면 서서히 의심병이 악화되면서 어느 순간 폭발하여 가정과 친구와 사회를 파괴하게 된다. 그래서 플라톤은 자신의 건강법을 터득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 무슨 이유로든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사랑하기 위해서만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비위 상할 일이 생겨도 상대를 내 몸처럼 여겨보자.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위장병이 없어질 것이다.* 이은우 기자



입문 수기



(고귀한 빛)

죄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지만 항상 함께하시는 빛의 하나님 23년 인간의 모습으로 구원의 역사 하고 빛의 몸으로 환원 되셨네

육천년간 마귀세상 긴 여정 속에 원래 빛의 존재임을 잊고 살아 왔네

언젠가는 돌아가리 원래의 빛으로 모든 죄를 다 벗고 마귀 형상을 벗고

단상 중앙에서 발하시는 빛은 보여주시는 바로 주님의 얼굴

모든 것을 다 아시니 계속해서 바라보면 씻고 또 씻어주시어 고귀한 빛에 하나되리라

2016년 5월에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다. 그동안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나'라는 존재의식이 없어지기 바라며 공장과 제단에만 열중하며 지내왔다. 주민증 발급할 때 아이들이 알게 되어 여동생과 딸 넷이 찾아왔다. 식구들과 떨어져 산 지가 십 몇 년이 흘렀다. 아내 되고 얼마 되는 한 사람의 진실한 신앙을 이해하고 인정해주지 못한 탓으로 빚어진 이별이었다. 아이들은 얼마 없이 긴 시간을 세상의 풍파 속에서 지내야 했다. 그런데 모두 건강하게 자랐고 잘 되어 있었다.

난 아들이 없고 딸만 넷을 두었는데, 첫째 딸 둘째 딸이 결혼하여 큰딸은 아들 둘, 둘째딸은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 참 신기한 일이었다. 큰딸은 중학교, 둘째딸은 고등학교 '윤리' 교과과목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한다. 셋째도 대학을 나왔고, 막내가 대학생인데 많이 자라서 어릴 때 모습을 모두 정도였다. 모두 훌륭한 모습들이라 환상적인 꿈을 꾸는 듯하였다. 큰딸의 큰아들은 초등

마지막회, 영생 누리는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합창단 앞에 내린 이슬성신(장선숙님이 앞줄 맨 우측에 있다)

학교 5학년인데 피아노 레슨을 오래 받지도 않고 피아노 연주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 마음만 간절하고 이루지 못한 꿈을 손자를 통하여 이루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였다. 난 친구가 없었는데 항상 벗처럼 잘해주던 여동생도 함께 왔는데 오랜만에 반가웠고, 동생도 딸만 셋 있었는데 아들을 낳아 잘 자라고 옛 가족 잘 살고 있다고 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일이라 여겨지며 너무나 감사했다.

말들이 공중에 나를 만나러 오면서 초코파이를 사왔는데 공장식구들과 나눠 먹으니 모두 맛있게 먹었다고 하며 딸들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도 있었다. 모든 일이 주님이 축복해주신 일이라 너무나 감사했다.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살피주신 주님께 한없는 감사를 거듭 드렸다. 잠지 전능하시고 온 인류를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구세주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도 좋은 일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세상 마귀세상이다. 이제 구세주의 출현으로 사망의 조류를 거슬러서 영생의 조류가 흐르자니 엄청난 마귀의 방해가 있으며 힘이 많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모함모략하며, 심지어 가족들도 이해를 못 하기에 말린다. 하지만 사람 속에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고 구세주께서 알려주시며, 영생의 진리를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논해주시니 누구라도 들으면 깨달을 수 있다. 사람 속의 '나'라는 주체의

식이 사랑의 신이므로 나라는 것을 제거해야 영생하는 하나님으로 거듭날 수 있다. 나를 이기고 없애는 일이 결코 싶지 않지만 구세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모든 것이 순조로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보향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세상 살고 있어요)

수천 년간 한민족의 수난의 역사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참혹한 전쟁의 수난

고생하시던 조상님들의 숨결 가득한 이 땅위에 너무나 좋은 세상 열리니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출현

해마다 불어오는 거센 태풍의 피해 가뭄과 잠마로 흉년과 기근

분신의 능력으로 사람의 사상을 변화시켜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고 인류에게 참 평화를

물질문명이 없던 어두운 시대의 어렵고 힘든 생활의 여정

수천 년간 해마다 한반도에 수없이 불어온 태풍을

36년을 막고 계시는 엄청난 능력의 구세주

해마다 지루한 여름장마 어느 때부터 사라지고 해마다 주시는 풍년 크신 은혜로 풍성한 양식

북한의 적화야욕 멸하시어 남북전쟁 막으시니 참혹한 전쟁은 다시 없고 영원한 평화가 이 땅위에

구세주의 5대공약 이루시니 지상천국 이뤄지고 발달한 문명 속에 너무나 편리한 생활

우리는 너무나 좋은 세상 살고 있어요

구세주의 뜻이 있어, 인류구원의 큰 역할을 할 의인들을 만들기 위해 삼층 공장을 세우시고, 큰 사랑과 은혜로 키워 오셨는데 작년에 문을 닫게 되었음은 바로 우리의 순종하지 못하는 허물이 있었음이다. 아깝고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었지만, 반성하고 각성하며, 빈 시간을 봉제교육을 열심히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12월에 보광패션이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창업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한 일이며, 구세주께 한없이 감사드렸다. 모든 직원들이 새로운 마음 기쁘고 각오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지난 메시아절(2016년 12월 25일) 2부 행사 때에는, 봉제교육을 받은 분들이 배운 기술로 만든 옷을 입고 패션쇼를 했었다. 나도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참석했다. 옷 이름은 하늘나라 옷, 입어서 기쁘고 보는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옷을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한없이 밝고 아름다운 천국, 기쁨과 자유함과 평화가 끝없이 펼쳐지는 귀한 우리의 천국을 생각하며 만들고 입었다. 온 인류의 본향인 귀한 천국을 마귀로 인하여 잃어버렸지만 "한국에 출현하신 구세주로 말미암아 반드시 천국이 다시금 이루어져" 마귀가 정벌된 안식일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온 인류가 이 귀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장선숙 / 보광패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폐하게 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이사야 43:11)"라고 하였다. 구원자가 곧 구세주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는 오직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구세주를 '이긴자' 또는 '동방의 의인'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등으로 표현하고 동식물로서 '양'과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으며, 또 구세주는 '명랑한 새벽별'이라는 이름을 가진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자칭 재림예수라는 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구세주의 다양한 별칭들 중에 일부분만 가져다가 구세주 흉내를 내고 있다. 예컨대 보혜사 성령 또는 이긴자를 운운하면서 자칭 재림예수라는 자와 모닝 스타(Morning Star)라는 새벽별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운운하면서 자칭 재림예수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재림예수로 와서 죽게 되자 어머니 하나님이 성경에서 찾았다고 하는 자가 있다. 이미 승리 제단 찬송가에는 기독교의 찬송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사(歌詞)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가사를 고쳐서 부른 지가 더 오래됐다.

이렇게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자마다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

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데살로니가후서 2:11-12)"의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자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성경말씀 중에 일부분만 가져다가 구세주 흉내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참구세주 하나님을 따르는 천군천사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린도전서 13:10)"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통쾌하기 짝이 없다.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치 못한 것이 폐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온전한 것이 없었다는 소리요, 지금까지 구세주가 안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을 바울이 말한 것인데, 예수가 이제그대로 완전히 유대 땅을 떠나서 프랑스로 간 다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2014. 12. 3. 본부제단 설교말씀 중에서)."라는 참구세주의 말씀에 의거한다면, 예수 자신이 온전치 못하였는데 온전치 못한 예수의 재림은 어불성설이요 더구나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셈이다.

자칭 재림예수라는 자들에게는 영생만큼은 모방이 안됨 예컨대 자칭 재림예수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직접 구세주로 오시기에 재림예수란 없다

중에 어떤 이는 거창하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호세아 4:6)"라는 성경구절을 앞세워 신약성경의 비유 말씀을 가장 잘 풀이하고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해석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정작 겹겹이 해당하는 '말씀'만 단무하지 알맹이에 해당하는 '영생'이 없다. 2011년에 이런 지적을 받아, 자칭 계시록의 주인공은 서둘러 자기 자신도 영생할 수 있다고 강의하고 그 자신을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의 피로 죄가 없어진면 육신의 죽음이 없을 것이라며 '영생'을 추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참구세주처럼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을 이기는 경지에 오르지 못한 자가 설불리 '육신 영생'을 모방하리란 필히 곤경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세상은 죽음이 엄연히 상존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 있게 "나는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어!"라고 외치면 사자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듣고 달려와서 병들게 하고 폭삭 늙게 하여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만든다.

이들진대 승리제단에 속한 식구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나는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어!"라는 영생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망의 신을 제거하는 이슬성령의 은혜를 받기에 가능한 일이다. 사망권을 이기는 참구세

주의 얼굴형상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승리제단 밖에서 참구세주의 설교말씀 테이프를 가져다가 연구하여 영생하는 비결을 알아내어 자신들의 지식으로 확보하고자 애를 쓰지만 결국 헛된 결과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실령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몸을 구성하여, 죽지 않는 빛의 존재로 화한다는 원리까지 인지하는 수준에 이르더라도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영생을 쟁취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왜냐하면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망의 신이 되는 마귀요 원죄가 되는 선악과라는 사실을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구세주께서 이슬성령의 은혜로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마귀'를 죽여주셔야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어 그때부터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 속의 피가 하나님의 피로 점차 변하기 시작하여 영생하는 하나님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에, 어떤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가운데 아는 것이 아니고 기쁨부음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쁨'이란 이 세상의 참기쁨 같은 것이 아니라 성

령의 기쁨을 말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신을 말한다.

스가라 14장 4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짐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단지과 백성이므로 성경 속에 나오는 지명 역시 현재 단지가 백성들이 살고 있는 한반도의 지명과 관련하여 예언되고 있다. "내 백성이 갈지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이사야 26:20)"라는 구절에서 '밀실'이라는 지명을 볼 수 있는데, 이 밀실이라는 곳에서 구세주가 연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자가 되었다!"는 인정을 받았던 성지(聖地)이다.

이 밀실의 위치를 격암유록에서는 노고산과 소래산 사이에 있다고 하고 또한 그곳에서 삼신(三神)이 역할한다고 예언하고 있다. 정확히 말해서 노고산의 남쪽 산기슭에 밀실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노고산 정상에는 오만제단이 있다. 오만제단의 터를 닦을 때 제일 먼저 바위를 깨는 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여기저기서 바위를 깨면 그 깨진 면에 감람나무 잎사귀가 뚜렷하게 새겨져 나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노고산은 성경적으로 볼 때 감람산을 의미한다. 그 당시 감람나무로 불림을 받는 영모님이

감람산 정상에 있는 오만제단에서 예배를 인도하셨던 것이다.

그런데 작년에 감람산이 되는 노고산이 갈라져 오만제단이 있는 북쪽과 밀실이 있는 남쪽으로 물러나 있게 되었고 그 사이에 매우 큰 골짜기가 동서로 뻗어있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부천대학 제2캠퍼스 건설). 성경 스가라 14장 4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서는 큰 지진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 경기도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다만 저 멀리 남쪽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후에 구세주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는데,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할 것이며, 그날에 세상의 빛이 없어져 어두워질 때 구세주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살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구세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소사에서 흐르기 시작하여 만국에 통하는데, 이때 구세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살고 눈과 혀가 썩어가는 괴질에 걸려 죽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세계 각 나라의 백성들이 은금 보화를 배에다 바리바리 싣고 와서 경배한다고 한다. 구세주 하나님이 계신 한국이 콩알처럼 작은 나라라고 하여 끝까지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애급과 같은 강국의 백성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고 예언하고 있다. 이것은 스가라 14장 5절 이하의 내용이다. 앞으로 이 예언대로 곧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박태선 기자